

2005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yeoyeon.cyworld.com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helper@yonsei.ac.kr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땀.통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위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이야기

2005 새터 반성폭력 내규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05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위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이야기

- 02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 04 여연자연을 소개합니다
- 05 반성폭력 내규, 이럴 땐 어쩌죠?
- 06 만화로 그린 : 새터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
- 08 새터 반성폭력 내규
- 16 사건의 지원과 해결을 위한 이야기들
- 20 새터내규에 대한 나의 생각
- 21 우리가 가진 성차별적 / 성폭력적 문화 짚어내기

contents

2005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새터반성폭력내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새터에서 지켜야 할 '성폭력'에 대한 자치규약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이라는 말은 왠지 남의 일 같고, 말하기 겉고럽거나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내려 가다보면 내규에 써있는 내용들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누군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연세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러한 '자치규약'을 정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터내규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왜 '새터'에서 반성폭력내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새터는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이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새터는,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적응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어색함을 없애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실천하는 과정은 갖가지 성폭력을 낳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스킨쉽이 요구되는 게임이나 벌칙, 음담패설, 술자리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적인 신체접촉, 여성에게 부과되는 편견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재미를 위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진행되어왔고, 그 속에서 갖게 되는 성폭력의 경험과 피해들은 그대로 묻혀져 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과 우리 사회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새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내규'로 정하여 서로 잘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새터내규는 이러한 새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누구도 성별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위해서, 반성폭력내규는 새터라는 공간에서 빠져선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성폭력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성폭력에 대해 말해야 한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해자의 잘못이 달라지거나 더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폭력이란 흔히 생각하듯이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뒤에 종종 따라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어디까지 성폭력인가요?'

'이런이런 행동은 성폭력이고, 이런이런 행동은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명쾌한 대답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폭력은 눈에 보이는 수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것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시각이며, 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여성이 받는 모든 폭력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몸담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폭력'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넓어지고 반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시각에서 아직도 멀기만 하다. 몇 년 전부터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사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빈곤하기만 하다.

그러나, 성폭력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성폭력에 대해 말해야 한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해자의 잘못이 달라지거나 더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몇몇의 파렴치한 가해자와 온 나쁜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의 발생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 신체적/정신적 접촉을 통해 다른 이와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는 방식, 성적 욕망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이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져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대학을 바뀌어가는 반성폭력 운동은 2000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제정과 2004년 반성폭력 학칙개정 결과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반성폭력 운동은 계속 되고 있다. 새터내규는 이러한 흐름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진 새터내규의 모습을 기대한다.

여연자연을 소개합니다!

여연자연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 연대〉의 준말입니다.

아마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듣는 말일 텐데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 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성문제

여성문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성문제라고 하면 일단 성차별과 성폭력 등 우리사회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모든 문제들을 들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권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권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남성의 생각/남성의 말과 행동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의 위치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이러한 성별권력관계를 성찰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뛰어 넘는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연세자치단위 연대

자치단위? 자치단위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과/반 학생들이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등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모여 자치를 하는 단위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연세 학생사회 전반의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다시 말해서 여연자연은 여성문제를 연세 학생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세대학교에 있는 모든 자치단위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연자연이 만들어지기까지

연세대학교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성추연(연세대 성폭력 뿌리 뽑기 연대회의)이라는 자치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성추연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새터 내규를 자치적으로 만들고 학내의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요, 200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여연자연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연성추연에서 여연자연인가?

연성추연은 말 그대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각 단과대 대표가 한 명씩 모여서 논의하는 조금은 좁고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연세학생사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과/반 학생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학생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과/반인 만큼, 과/반 학생회, 동아리까지 모두 참여하여 연세대학교 내의 성폭력적인 불합리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나도 여연자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네,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아니 꼭 연세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싸이월드 클럽을 방문해주세요. (싸이월드 클럽주소 : yeoyeon.cyworld.com)

자세한 문의는 각 단과대, 과/반 별 여성주체 또는 반성폭력 주체들에게 문의하세요^^

by_ 손영현 이과대학생회장

반성폭력 내규,



이런 말이
어쩌면?
아니?

Q 반성폭력 내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새터내규에 보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 그리고 각 자치단위나 학내기관을 통한 해결 과정,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의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규'라는 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규를 어기지 않도록 가장 크게 강제하는 것은 명시된 규율의 문구가 아니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미 정해진 규율에 의해 생활하고 통제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주인공이 되고, 즐거울 수 있는 새터 기쁨이 행사를 위해 학생회사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실정에 맞게 함께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규가 누군가에 의해 이미 정해진 규율이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필요와 공감에 따라 만들어 지고 변화, 발전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것으로 다가오며, 쉽게 어길 수 없는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Q 반성폭력 내규를 잘 지키고 싶은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과/반/동아리의 분위기가 서먹해져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가요?

● 공동체 혼자서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배려'는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는 이 상황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데, 분위기가 썩다고 할까봐 말을 못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그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구성원 중 일부만 즐겁다면, 그 상황에서 배제된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토론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것이 가장 좋은 분위기가 아닐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를 시작할 때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내용과 빛깔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반성폭력 내규가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 속상한 일이지만, 주위에서 매우 자주 목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또 쉽게 묻히게 되기 마련인데요, 내규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만든 규율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인 동시에, 내규 자체를 무력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정색하고 '왜 그러는 거니?'라고 용감하게 물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내규를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과 공감 없이 단지 내규를 누군가가 강제하는 불편한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규는 스스로 만든 규율이며,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다른 이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by_ 윤태영 생대학생회장



에피소드1 한 공동체에서 '물 좋다'는 말이 그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라는 사실, 여성의 외모를 공동체의 '얼굴'로 내세우려는 태도, 이것은 여성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단지 '보이는 대상', 즉 '보기에 좋거나 싫은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여성을 성애화된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양한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를 억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에피소드2 특정 성이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문화를 위해, 성차에 기반한 폭력적인 경험에 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새터내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규약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 혹시 새터 내규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규를 비롯거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순간 당신으로 인해 배제당하고 억압받는 이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모두가 즐거워야 할 새터는 당신만의 놀이터가 되어버릴 것이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화된 듯하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불편함을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화기애애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는 것으로 취급되며, 문제제기하는 이는 유별 나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딱히게 된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위해 그런 정도는 덮어두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공동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며 피해자를 공동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필요할 때는 여성의 외모를 공동체의 '얼굴'로 내세우려 하더니, 여성이 겪는 폭력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를 강요하는 공동체, 대체 그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일까?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지원 옹호, 혹은 문제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 즉 2차 가해가 된다.

by_ 조재현 만화사랑

- 공공장소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 고정된 성 역할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예) 식사 준비나 방 청소를 할 때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강요하는 경우

4) 놀이 자리

- 신체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경우
- 예1) 00년도 모단대 새터에서 여왕벌 게임을 하였다.
- 예2) 02년도 모단대에서 다른 단대의 여학생 머리카락을 뽑고 립마크를 찍어오는 게임을 하였다.
- 예3) 02년도 모단대에서 무릎 앉기 게임을 하였다.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예) 02년도 한 단대 새터에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력가'를 부른 사건이 있었다. '젓 소부인 엘리제' 등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 예) 00년도 모 단대 새터에서 '포르노' 영화 제목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예1) 00년도 모 단대 오티 장소에서 아카라카 섹스 버전을 외치는 사건이 있었음.
- 예2) 00년도 모 단대 새터 때 '첫날밤에' 등의 게임이 이루어졌다.

5)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손이나 신체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동작을 하는 경우
-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모든 행위

6)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

는 농담을 하는 경우

- 예) '열 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등의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을 하였을 경우
- 예) '애 잘 낳게 생겼군', '고속도로, 계란후라이, 건포도, 질벽, 젖소', '얼굴 값 한다' 등의 표현과 같이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말
-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
- 예) 남성에 대해 - '기생 오라비 같다', '남자가 왜 그렇게 출썩거리냐?',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냐?',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등
- 여성에 대해 -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 '여자가 힘이 세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 '넌 꾸알줄도 모르냐' 등
- 한 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 예)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 '여자와 복어는 사흘도리로 때려야 한다', '여자는 그냥 두면 기어오른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상종지도', '칠거지악', '여자가 재법인데',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 등의 표현

7) 적대적 환경 조성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예) 일부러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소리를 냄으로서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쪽지나 편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다른 성의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행위
- 예) 01년도 모 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함.

8) 사이버 공간

- 각 과 / 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예) 커뮤니티 자료실에 포르노를 올린다거나, 게시판에 성폭력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

1)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 성폭력 사건을 듣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경우

예) 01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반대표가 '별 일 아니다'라고 반응하고 은폐시키려 하였다.

예) '별 거 아닌 일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 가해자 주변에서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예) 02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친구가 '나도 같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경우 동조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2차 가해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4. 대상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의무

- 새터에 참여한 모든 학내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새터를 준비하는 각 학생회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받아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새터 내규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 기간에 발행하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 전문과 내규 소개 글을 실거나 새터 내규를 위한 모임에서 제작한 내규에 관련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하여야 한다.
- 각 단대 학생회는 새터 장소에 성폭력 신고함을 만들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학생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새터를 준비하는 주체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과문을 학내 공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신고와 신고기구

-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은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 사건 신고는 새터 기간뿐만 아니라 새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신고와 관련된 시효 규정은 없다.

7.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성폭력 사실과는 상관없는 피해자의 용모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됨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동아리연합회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나 과반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나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최소3인, 최대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는 가해자 처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단대에서 구성하며,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5) 대책위 위원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석이 된 대책위원의 소속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와야 한다.

10. 대책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1)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게 가한다.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보호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 가해 행위 및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내용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2)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내 지정된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12.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개정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3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의 해결과 지원을 위한 이야기들

연세대학교 새터



반성폭력 내규 2005

● 신고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사건의 '중재'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자리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이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 즉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먼저 살피고, 천천히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함께 해결을 도울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건 해결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를 때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야기를 듣는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해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시각이나 원하는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험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피해자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사건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이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내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몇 공간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나 공동체 안에서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성폭력 상담실 차원의 가해자 교육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터 프로그램 중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피해자가 선택 가능한 조치와 사건 해결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 너무 피해자 맘대로만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 중심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신뢰하고 가해자가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보통 '알리바이를 세운다'고 하죠) 처벌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반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아무 근거 없이 '가해를 하지 않았다' 또는 '그 행동은 성폭력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힘의 차이와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이러한 힘의 차이(일반적으로 성별권력관계라고 부릅니다.)가 성폭력의 빈번한 발생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힘의 차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에서 또는 사건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자의 말보다는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의 상황에 대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며,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되요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사건해결 과정에서 또 다른 가해, 즉 2차가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2차가해란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호의나 안타까움으로 내뱉은 말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성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분위기가 나빠진다, 공동체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말로 사건을 물어버리려고 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2차가해에 속하며, 이러한 2차가해는 무척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해당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공동체의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와 해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해자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하죠?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고정관념들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책망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터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쉽게 말하지 못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친한 친구나 선후배일 때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는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탓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건의 공식적인 해결은 사건을 확대하거나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해결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사건이 묻혀지거나 뒷소문만 무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1. 새터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단과대나 과/반 학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각각의 단위에서 주체가 참여해야 하며, 이 때 가해자가 속한 단위의 주체는 2차 가해를 예방하고 비대위에서 논의된 바를 책임있게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 단위에서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을 처리한 경우 반드시 간략한 개요와 처리과정을 단과대 학생회나 학내 성폭력 상담실 등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의 축적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단과대 차원에서 취하기 힘들거나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를 원할 경우, 총여학생회나 성폭력 상담실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는 성폭력 상담실에서 맡고, 총여학생회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나 학생회 차원의 비대위에서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 역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지원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차원의 해결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내 기관을 통한 해결은 피해자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어난 사건들이 해결된 방법을 참고하고 학내에서 적용되는 제도들을 숙지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적 틀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성폭력이 일어나게 된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나갈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의 해결이 피해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공식적인 과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17대 총여학생회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를 참고하였습니다.

... 대학이라는 공간은 새내기들이 이전에 속해왔던 공간과는 달리, 다양한 사람 및 가치들이 서로 존중함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획일화된 가치와 비교적 균일한 구성원 속에서 지내 왔던 새내기들은 이로 인해 약간의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한 개념의 확장은 새내기들이 혼란을 겪기 쉽고, 올바르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고, 혹은 여고에서 폐쇄적인 성에 대한 담론이나 찢어야기들만 접해온 새내기들에게 양성의 조화로운 공존이나 상호 존중과 같은 명제들은 막연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만 존재할 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 새터반성폭력내규는 새내기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처음 적응하는 자리에서, 양성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호존중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접근을 유도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단과대학의 경우,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 남성적인 분위기 특성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성폭력들이 행해지지는 않았는지, 새터 때부터 이러한 성폭력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짐으로 인해 그릇된 방향의 양성공존이 고착화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 보다 올바른 방향의 상호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 이러한 반성폭력내규에 대해 그럼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이고, 어디부터가 성폭력인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너무 양성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분위기를 너무 경색시키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내규에 대한 이유없는 비난이나 '성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저항심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야한 농담이 섞인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닌 양성공존이라는 가치의 내면화이며, 단 한 사람의 성폭력 피해자도 생기지 않는 새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터는 새내기들에게 대학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자리이며 대학 공동체,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맨 처음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새터 자리가 반성폭력 내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경계하고 고민하며 양성의 공존을 생각하는 시작이 된다면 대학과 사회에서의 성폭력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by_ 조인래 의과대학생회장

사회대 이야기

정치외교학과 02학번 박천일

05학번 여학우는 당신과 연애하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반 새내기 중에 진짜 이쁜 애 들어왔어."
"재는 내가 찍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언제나 새내기가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거의 모든 남학우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남학우들이 이렇다고, 사회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의 모든 남학우들은 이렇다고, 그렇다면 지금 무슨 글을 쓰려 하는가. 모든 남학우들을 위해 변명을 하려는가. 아니면 그들을 비판하려는가.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그 남학우들 중의 하나였던 자신이 먼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자기비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편히 이 글을 쓸 생각이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글은 자기비판 글이다. 이것이 현재 남학우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독자가 판단할 일. 그럼 시작하겠다.

나의 한 선배는 그의 공간에 이런 글을 썼었다. 재학생 남자선배가 신입생 여학우와 연애를 한다는 것은

성별과 학년에 의한 위계질서의 관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만 한 신입생 시절, 밥을 사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선배와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성적인 혹은 위계에 의한 권력을 소유한 선배가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여학우를 꼬드기는 작태일 터라고. 여기에서 우리의 남학우들은 엄청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 것을, 흔히 시쳇말로 얘기하는 선배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들 예쁜 여후배들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어디 얼마나 예쁜 애들이 들어왔나 볼까하면서 눈에 물을 끼고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거짓말. 오, 미안. 자기비판을 한다면서 어느새 남학우들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말았다. 뭐 그냥 나 자신을 타자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어쨌든 여기서 뜬금없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05학번 여학우는 남학우를 당신과 연애하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사실 이 공간은 사회대 내의 놀이문화에 대해서 반여성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공간이지만 그것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단대에서 할 테니까. 그리고 반마다 차이도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쓸 글을 써본다. 할애된 지면이 좁아 너무나 추상적으로 뜬금없이 대충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 자료집만 제대로 읽어도 큰 무리 없이 이해될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후배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술 취한 후배를 집까지 친절히 데려다주는 젠틀한 선배인 당신.

젠틀한 행동 속에 시커먼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새내기 맞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학우 숫자!

공대 이야기

어김없이 2월이 되면 선배들은 기대와 긴장에 가득차게 됩니다. "우리 반에 어떤 새내기들이 들어올까?", "올해 새내기 맞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선배가 되었으니 후배들 잘 챙겨줘야지.", 아, 이 선배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선배들이 얼마나 새내기들을 기대하는지 그 걱정 섞인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고 집중한 사랑을 받는 새내기들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바로

여학우! 그러나 여학우도 여학우 나름이지요. 여대가 아닌 이상, 어느 단과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성비를 갖춘 남녀공학 공대야말로 여학우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입니다.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공학계열에 합격한 여학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합격한 학교에 입학한 것도 기쁜 일인데 신입생 OT에 가니 선배들은 나를 특별취급 해줍니다. 저는 여학우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매년 벌어지는 여학우 생탈전에서 선배가 힘겹게 생취해서 얻은 소중한 전리품이거든요. 모두가 모인 강의실, 뒤에서 선배의 승리담이 들려옵니다.

"우리 반이 다른 반 보다 여학우가 한 명 더 많아, 빼오는데 힘들었다니까."

"하하, 수고했어. 다 네 공이야. 덕분에 이번 년도 즐겁겠는데?"

역전의 용사인 선배와 그 옆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흐뭇하네요. 어라, 옆에 앉은 동기 친구 한 명이 눈을 좌우로 돌려가며 무언가를 세고 있는 눈치네요. 무엇을 세고 있는 지는 척하면 척이죠. 남학우 많아지는 것은 별 신경 안 쓰면서 여학우들의 숫자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비싸다는 희소성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선택 가능성도 많아지니까? 그럼 무엇을, 왜 선택하는 거지? 여학우는 친근한 선, 후배, 동료가 아니라 연애 대상으로 보는 이성애 중심주의? 어이쿠, 머리 아파라. 이런 골치아픈 생각은 집어 던지고 다시 나의 행복을 들추어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나는 행복한가요? 여학우를 단순히 같은 "인간"으로서 대한 게 아니라 꼭 더 얻어가야 하는 고가의 "상품"으로 전락시킨 것, 결국 우리는 "남학우들 뿐인 칙칙한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어주는" 꽃밭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학우가 많은 것이 곧 그 반의 "장기"이자 "자랑"이 될 수 있는 현실, 그러면서도 남학우 중심의 문화에서 슬며시 배제되는 우리의 존재, 한 사람의 여학우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당신들의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 거부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고, 나 자신과, 또 당신들과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할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감수해보죠. 나는, 행복해질 자신이 있는 인간이니까요.